

“취약계층에 특화된 복지사업 펼친다”

글 이정권 아산재단 복지사업팀



아산재단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10년간 2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재단이 지원한 제과 장비로 쿠키를 만들고 있는 밀알베이커리의 지적장애인 조병성 씨



경기도 고양열린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아산재단이 지원한 책상과 PC 등을 이용해 인터넷 수업을 받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하 아산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설립이념에 따라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은 아산재단이 설립된 지 38년째가 되는 해이면서, 정주영 설립자께서 태어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금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은 115조 원에 달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회 · 의료복지사업에 135억 지원

변화된 사회 · 경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위해 아산재단에서는 지금까지의 복지사업을 되돌아보면서 사업구상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총 135억 원을 사회복지사업과 의료복지사업에 편성하여 발달장애인과 영세 복지시설, 저소득 환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25억 원씩 10년간



복지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경주와 울산에서 열린 현장 종사자들의 워크숍



서울아산병원은 몽골 국립제1병원에서 생체 간이식 수술(사진)을 하는 등 저개발국의 의료자립을 지원하는 '아산 인 아시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른 병원의 해외 의료사업도 포함시켜 저개발국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총 250억 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숙인과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가출청소년 등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취약계층은 무척 다양합니다. 이에 아산재단은 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교육과 관련한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 수혜자 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복지경영 교육과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세한 복지시설의 경우 화재·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아산재단 홈페이지에 상시접수 시스템을 구축, 연중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SOS 복지시설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산재단이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독거노인들의 복지입니다. 현재 전국의 독거노인은 131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아산재단은 건강한 어르신 자원봉사자가 어려운 형편의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말벗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노노(老老) 케어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아산재단 산하병원 및 관련 노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SOS 의료비 지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서울아산병원 등 아산재단 산하병원에서 지원해오던 기존의 사업을 다른 병원의 저소득·희귀난치질환 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방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러한 개방화 정책에는 다른 병원의 해외 의료봉사활동과 의료기술 전수 등 해외 의료사업도 포함시켜서 저개발국 소외계층에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처럼 확대 개편한 사회·의료복지사업을 위해 아산재단은 전국의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지난 4월 말까지 다양한 아이디어의 사업계획안을 접수하였고,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2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위원과 사업담당자가 서로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가진 뒤 6월 하순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복지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1977년에 설립된 아산재단은 사회복지·의료복지·장학·학술연구 등의 사업에 지금까지 총 2,041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